

# 한국 한자음의 특성

이돈주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한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차용한 외국 문자이다. 한자가 유입된 정확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논외로 하고라도<sup>1)</sup> 최초의 시기에는 필경 한음(중국음)이 지닌 제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려 했겠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착화하면서 점차 국어의 음운 체계에 동화되거나, 또는 이에 알맞게 변용되어 마침내 한국의 한자음 체계가 형성되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월남 한자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소론은 일단 중국 한음을 비교의 기반으로 삼을 때 한국 한자음<sup>2)</sup>은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데 뜻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1) 일본의 만전신조(滿田新造)는 조선에 한자와 더불어 한자음이 수입된 정확한 역사(authentic history)는 전한 무제시대(140-87 B.C.)에 시작되었으며, 수입 경로는 북방 중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돈주, 「만전신조의 조선 한자음 기원설」, 『어문논지』(충남대) 6·7 (1990:564) 참조.

2) 통시적 관점에서는 '조선 한자음'으로 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일상대로 한국 한자음이라 칭한다.

신숙주는 『동국정운』(1448) 서문에서 당시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빚어낸 변인을 매우 극명하게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어리석은 스승이나 선비들이 (1) 반절법을 모르고 (2) 자모와 운모의 분류 방식도 몰라서 (3) 혹은 글자꼴이 상사하여 한 음으로 하고 (4) 혹은 선왕의 휘자를 피하여 다른 음을 빌리며 (5) 혹은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 (6) 혹은 한 음을 둘로 나누며 (7) 혹은 다른 글자를 빌리고 (8) 혹은 점이나 획을 가감하며 (9) 혹은 중국 한음에 기대고 (10) 혹은 우리말 음을 따라서 (11) 자모와 칠음,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였다.

위의 11가지 변인 중 특히 (11)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원래 중국음에서 무성유기음 [k']로 발음되던 자음(字音)이 우리 한자음에서는 대부분 무성무기음 [k]로 발음되고 있다(溪母之字 大半入於見母).
- ② 원래 중국음에서 [k']음으로 발음되던 자음이 더러는 [h]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있다(溪母之字 或入於曉母).
- ③ 국어음에서는 [k']음이 많이 쓰이는데 한자음에서는 오직 夫(패)자가 있을 뿐이다(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夫之一音而已).
- ④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다.
- ⑤ 순중음과 순경음의 구별이 없다.
- ⑥ 치두음과 정치음의 구별이 없다(如舌頭舌上 脣重脣輕 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 ⑦ 우리 한자음에는 유성음인 전탁음 [b, d, g] 등이 없다.

위의 내용들은 세종 당시까지 우리나라 전래 한자음이 지닌 성모의 특징을 중국 운서음과 비교 귀납한 것으로 특히 ④~⑥은 한·중 양어 간에 존재한 음소 목록의 차이를 명확히 꿰뚫어 본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위에 제시한 11개 항목을 낱낱이 예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

국 한음을 고려할 때 한국 한자음의 성립 과정에는 크게 보아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특징들을 간략히 예시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여 네 가지 요인이란 (1) 본래의 중국 한자음이 우리 고유어의 음운 체계와 그 변화에 수반해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로서의 내적 요인, (2) 텍스트로 이용된 중국측 운서 체계에 맞추어 한국 한자음을 교정코자 한 인위적 노력으로서의 외적 요인 (3) 한자 학습 과정에서 타성이 빛은 과오와 유추의 요인, (4) 기타의 요인이다.

## 2.

첫째의 내적 요인은 서로 다른 언어 간의 접촉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우선 『훈몽자회』(1527)의 한자음을 검토하여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sup>3)</sup> 먼저 성모의 대비에서 그 특징을 들어 보기로 하자.

중국음운학에서 전통적으로 연용하여 온 소위 36자모는 『광운』(1008)의 반절상자(反切上字)를 분석 귀납한 중고한음의 성모(초성)를 대표한 것이었다.<sup>4)</sup> 그런데 이 성모들은 다시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등 네 가지 변별적 음운자질(청탁)이 상호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다.<sup>5)</sup> 전청:전탁은 [±voiced]에 기인한 것인데, 전탁음을 『동국정운』에서는 예외 없이 각자병서로 주음하였으나 이는 중국측 운서(고금운회거요)의 음 분류 틀에 맞춘 것일 뿐 당시의 우리 현실 한자음에 변별적 기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6)</sup> 그리하여

3) 여기에서 굳이 『훈몽자회』(자회로 약칭함)를 택한 이유는 『동국정운』(동운으로 약칭함)과 달리 당시의 현실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헌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광운』의 성모는 실상 41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돈주(1995:181) 참조.

5) 아음[후설연구개음]으로 예를 들면 전청[k-], 차청[k'-], 전탁[g-], 불청불탁[ŋ]과 같다.

6) 중국의 초기 관화(官話)를 반영한 『중원음운』(1324)에도 중고음에 존재하였던 성모의 청탁 대립이 없어진 대신 성조 체계가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돈주(1995:161) 참조.

『자회』에서는 이들 전탁음을 모두 전청음 또는 차청음으로 흡수 반영하였던 것이다.<sup>7)</sup>

중고 한음에서는 [±aspirated]의 자질에 따라 전청:차청이 대립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동운』에서 차청자는 모두 ‘ㄱ·ㄷ·ㄱ·ㅈ·ㅎ’ 등의 초성으로 반영하였지만 실제음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sup>8)</sup> 그 하나의 증거로 『자회』에 수록된 한자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한음의 전청음이 차청음으로, 또는 차청음이 전청음으로 반영되기도 하여 불규칙적이다. 아마도 그 원인은 위의 전탁음과 더불어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어에서 유기음의 생성은 한자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의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각설하고 『자회』에서 중고한음의 「端, 모[t-]와 「透, 모[tʻ-]자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필자(1979, 199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회』의 3,360자 중 (1)「端, 모자는 총 97자인데 /ㄷ/ 85자, /ㄷ/ 10자, /ㅈ/ 2자이고, (2)「透, 모자는 총 77자인데 /ㄷ/ 24자, /ㄷ/ 53자이다. 중고한음을 고려할 때 [t]를 ‘ㄷ’으로, [tʻ]를 ‘ㄷ’으로 반영한 것은 한국 한자음의 한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예씩만을 들어본다.

(1) 蒂(테→테) ← 都計切[tiei], 鬪(똥→투) ← 都豆切[təu]<sup>9)</sup>

(2) 湍(뚤→단) ← 他端切[tʻuan], 汀(땡→땡) ← 打丁切[tʻien]

7) ‘拳 권→권, 塘 땅→당, 盤 뽕→반, 緡 쫘→쫘, 腎 씌→신, 墮 땡→타’ 등과 같다.

8) 『동운』 서(序)에 “우리말에서는 「溪, 모[kʻ-]를 많이 쓰는데 한자음에 있어서는 오직 峯(夫)자밖에 없으니 이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라는 말이 적힌 사실로도 알 수 있다.

9) ( )안의 좌측음은 『동운』의 주음이고, 우측음은 『자회』음이다.

## 3.

한·중음 간에는 성모만이 아니라 운모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훈민정음』 중성해에도 모음의 원순성과 평순성의 차이를 합벽(闔關[±rounded])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였지만 한음에도 역시 개합(開合)의 차이가 최소대립쌍을 이룬다. 본시 중고한음에서는 선행하는 성모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음 [u/w]가 들어간 합구운모의 배합이 가능하였으나 우리 한자음에서는 아·후(牙·喉)음과 소수의 치음을 제외하고는 제약이 따른다. 그리하여 설음과 순음 뒤에서는 합구음의 연결이 제한되는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 음운 배합상의 내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한·중음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 A. 菓(과→과) ← 古火切 (見果合1) [kua] > kuo [guo<sup>3</sup>]<sup>10)</sup>  
 臥(와→와) ← 吾禾切 (疑過合1) [ŋua] > uo [wo<sup>4</sup>]  
 貨(화→화) ← 呼臥切 (曉過合1) [xua] > xuo [huo<sup>4</sup>]  
 坐(좌→좌) ← 徂果切 (從果合1) [dz'ua] > tsuo [zuo<sup>4</sup>]
- B. 糯(노→나) ← 奴臥切 (泥過合1) [nua] > nuo [nuo<sup>1</sup>]  
 螺(와→라) ← 落戈切 (來戈合1) [lua] > luo [luo<sup>2</sup>]  
 唾(퇴→타) ← 湯臥切 (透過合1) [t'ua] > t'uo [tuo<sup>4</sup>]  
 梭(좌→사) ← 蘇禾切 (心戈合1) [sua] > suo [suo<sup>1</sup>]
- C. 磨(마→마) ← 莫婆切 (明戈合1) [mua] > mo [mo<sup>1</sup>]  
 波(바→파) ← 博禾切 (幫戈合1) [pua] > po [bo<sup>1</sup>]  
 坡(파→파) ← 滂戈切 (滂戈合1) [p'ua] > p'o [po<sup>1</sup>]

위 예들은 중고 한음에서 합구성을 공유한 자들인데 A는 『자회』는 물론

10) [ ] 안은 현대한어의 병음 표기이다.

현대음에서도 여전히 합구음이다. 그러나 B는 『동운』에서는 합구음으로 주음하였으나 실제음이 아니어서 『자회』에서는 개구음으로 반영하였다. C는 양순음의 성질 때문에 반절하자(反切下字)에도 불구하고 『동운』마저 합구음의 개모가 탈락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한음도 마찬가지이다.

등운(等韻)의 특징도 한·중음 간에 차이가 있다. 중고한음에서는 1등운과 2등운이 변별적이었으므로 예컨대 후설저모음 [a]와 전설저모음 [a]가 대립하였다. 그러나 국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두 음이 비변별적이어서 『동운』에서도 다 /ㅏ/로 주음하였다. 중고한음에 두 음이 변별되었던 증거는 현대한음에서도 뚜렷이 증명된다. 두 예씩만 들어보자.

- A. 干(간→간) ← 古寒切 (見寒開1) [kan] > kan [gan<sup>1</sup>]  
 航(항→항) ← 胡郎切 (匣唐開1) [ɣaŋ] > xaŋ [hang<sup>2</sup>]
- B. 諫(간→간) ← 古晏切 (見諫開2) [kan] > ɬian [jian<sup>2</sup>]  
 巷(항→항) ← 胡絳切 (匣絳開2) [ɣaŋ] > ɬiaŋ [xiang<sup>4</sup>]

위에서 A는 1등운이고, B는 2등운인데 국어 한자음은 다 /ㅏ/이지만 현대한음에서는 다르게 변하였다. 전자는 이른바 개구호(開口呼)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B는 변천 과정에서 개모(운두) i/j가 기생한 결과 성모의 구개음화를 초래하여 제치호(齊齒呼)로 바뀐 것이다.<sup>11)</sup>

#### 4.

둘째의 외적 원인은 상술한 내적 원인과는 상반된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 한자음을 되도록 중국측 운서음에 준거하려는 태도이다. 『자회』 범례 제5조에 “무릇 한자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전해진 것을 이번에 많이 고쳐 훗

11) 부연하면 『용비어천가』 지명 중 ‘回叱家 횃가’의 ‘가’ 역시 한음 표기로서 ‘家’ ka > kia (>ɬia [jia<sup>1</sup>])와 같은 중간 변화형의 표기이다.

날 대중들이 바르게 익히도록 하였다.”라는 조례가 있다. 과연 『자회』 하주를 검토하여 보면 (1) 정음을 앞세우고 현실음을 주기한 예(4자), (2) 현실음을 앞세우고 정음을 주기한 예(13자), 1자 다음을 주기한 예(41자) 등 모두 58자가 있다.

(1) 貉: 우슌 학 本國音 락, 鎌: ·난 럼 國音 겐, 廁: :뒷·간·치 國音·츄

(2) 餉: 이·바·달 :향 正音 상, 羶: 노·릴 전 正音 셴, 弛: 활브·리·울 : 이 正音 始

등과 같다.<sup>12)</sup>

외적 원인의 또 한 가지는 知[t]·徹[tʰ]·澄[d] 등의 설상음과 端[t]·透[tʰ]·定[d] 등의 설두음은 이미 『동운』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 한자음에서는 ‘未可分辨’이었으므로 『자회』에서는 이들을 공히 /ㄷ·ㅌ/으로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신증유합』(1576)도 같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 나온 ①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② 『삼운성취』(1751), ③ 『규장전운』(1796), ④ 『전운옥편』(1796?) 등의 운서에서는 설두음계는 /ㄷ·ㅌ/을 유지한 반면, 설상음계는 모두 /ㅈ·ㅊ/으로 표음하였다. 성모의 종류에 따라 한 예씩만 예시하면 『자회』음과 후기 운서음의 차이를 일별할 수 있을 것이다.

A. 嫡(·덕→덕) ← 都歷切 (端錫開4) [tiək] > ti [di<sup>2</sup>]

天(턴→뎨) ← 他前切 (透先開4) [tʰien] > tʰien [tian<sup>1</sup>]

地(·디→디) ← 徒四切 (定錫開4) [di] > ti [di<sup>4</sup>]

B. 帳(:당→장) ← 知亮切 (知養開3) [tʃaŋ] > tʃaŋ [zhang<sup>4</sup>]

12) 그리하여 『자회』에는 심지어 당시의 중국음을 차용하거나 또는 이에 끌린 것으로 여겨지는 자음도 여러 자가 있다.

刷(좌) ← 數刮切 (疎鎋合2) [ʃwat] > ʃua [ʃua<sup>1·4</sup>],

雙(쌍) ← 所江切 (疎江開2) [ʃaŋ] > ʃuaŋ [ʃuaŋ<sup>1</sup>] 등.

寵(:통→총) ← 丑隴切 (微腫合3) [t'iwɔŋ] > tɕ'uw̃ [chong<sup>3</sup>]

池(디→지) ← 直離切 (澄支開3) [d̪iɛ] > tɕi [chi<sup>2</sup>]

동일 음소 /ㄷ·ㅌ/이 동화주로서 /i, j/를 공유한 동일 음운환경에서 이 같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어 고유어의 구개음화 시기나 조건과는 동질적으로 다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근세 중국어의 음운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한어에서는 근세에 들어 知[t-]계 성모가 照[tɕ-]· 莊[tɕ]계 성모와 합류하여 /tɕ, tɕ', ɕ/로 변화였는데 상기 운서류가 설두·설상음을 구별 표음한 소이는 바로 중국음을 고려한 인위적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 한자음을 위의 운서 표기음과 비교하여 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회』에 실린 한자(3,360자)음 중 ①과 ④에서 정·속음이 표시된 자는 모두 200자이다. 그런데 이 중 『자회』의 한자음이 구개음화, 단모음화, 아래아 /·/의 비음운화 등 규칙적인 음운 변화 과정<sup>14)</sup>을 거쳐 현대음에 전승된 자는 152자로서 76%를 차지한다. 이것은 ①, ④의 소위 속음(행음음, 통용음, 관용음)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 국어 한자음의 한 특징을 짐작케 하는 한편 『자회』가 당시의 현실음을 중시했음을 알게 한다.<sup>15)</sup>

둘째, 『자회』의 한자음과 ④의 표기음을 대비하여 보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자가 설상음자를 제외하고도 전자에 181자가 있다. 이 중 『자회』음이 단독음으로 전승된 자는 13자인 반면 ④의 음이 전승된 자는 122자이다. 이것

13) 현대국어 한자음에서 이들이 규칙적으로 구개음화, 단모음화한 사실은 별개 문제이다.

14) 예컨대 '堉' 딜>질(덜덜딜), '隼' 준>준(순정준), '寐' 미>매(미담미) 등을 말한다.

15) 예컨대 '灌'의 『자회』음은 '심'인데 ④에서는 '침'으로 정·속음을 표시하였다. 『광운』반절이 昌枕切[tɕiam]이므로 이에 따르면 '침'이 옳지만 우리의 속음은 일찍부터 '심'으로 독음하였던 것임을 알려 준다. 현대음도 역시 '심'이다.

을 중국 운서음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자회』의 한자음(속음)이 후기 운서에서 이른바 정음으로 환원되어 현대음에서 오히려 규범음으로 바뀐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16) 왜냐하면 현대의 여러 옥편·자전류는 대개 취음의 근거를 ④에 두었기 때문이다. 17)

여기에서 잠시 ①~④에 표기된 우리 한자음의 성질에 대하여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먼저 ①은 박성원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삼운통고』를 저본으로 삼아 한자 아래에 중국음(華音)과 한국음(東音)을 병기한 최초의 운서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한자음이 흔히 정칙음에서 벗어나게 된 연유를 우리나라에서는 언(言)과 문(文)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뜻에만 힘을 쓰고 음에는 소홀한 때문이라 하고 전래의 통용 한자음보다는 규범음을 중시한 결과 널리 중국 자서(字書)를 참고하여 화음의 성모에 따라 오음, 청탁을 되돌려 놓은 것이 많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상단에는 450여 자에 대하여 우리의 속음을 주기하여 놓았으므로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편 박성원과는 무관하게 홍계희는 ②를 편찬하였는데 그 동기와 교정 방법이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 우리 음은 행음 속음을 본위로 하여 정리하였는데 자모와 칠음이 어긋난 것이 있으면 교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었다. ㉡ 중성이 잘못된 것은 다 중국음을 기준으로 하여 유추하고 이를 교정하였는데 혹은 그대로 두기도 하고 혹은 개정하여 바르게 되도록 힘썼다는 것이다. 이 말에서 ②의 한자음도 전래의 속음을 대부분 정음으로 되돌려 규범화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 뒤로 정조는 사림의 목탁(詞林之木鐸)이 될 만한 운서가 필요하다는

16) 한 예를 들면 ‘茨’의 『자회』 음은 ‘:감’인데 이를 ④에서는 ‘검’으로 표음하였다. 『광운』 반절이 巨險切(giem)이니 이를 따르면 역시 ‘검’이 정칙음이다. 현대음 ‘검’은 후자를 따랐으므로 속음 ‘감’을 버린 셈이라는 뜻이다.

17) 이러한 전통은 이미 정윤용의 『자류주석』(1856), 지석영의 『자전석요』(1909), 최남선의 『신자전』(1915)에 이어졌다.

명분으로 이덕무를 시켜 편찬한 것이 바로 ③이다. 그러나 대조하여 보면 체재만 4단식으로 바뀌었을 뿐 그 음계는 ②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③ 역시 전래의 속음을 무시하고 중국 운서에 의거, 정음으로 환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는 서문이나 발문도 없어서 저자와 간행 연대가 미상인데 ③의 자매편이므로 필경 동시대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확인자전이라는 점뿐 아니라 후대의 옥편·자전류의 전거로 이용된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③이 규범음만을 나타낸 반면에 ④는 중국음을 삭제하고 한국 한자음만을 표기한데다 620여 자에 대하여 정·속음을 밝혀 놓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대국어 한자음으로 정착되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속음이 정음을 이겨낸 것이라고 할까.

이제 4종의 이동성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자례: 暇 憾 鎌 歐 嗜 懂 春 灑 港 姬

① 하속가 함속감 렴속검 우속구 시속기 충속동 송속용 용속룽 강속항 기속희

② 하 함 렴 우 시 충 송 용 강 기

③ 하 함 렴 우 시 충 송 용 강 기

④ 하속가 함속감 렴속검 우속구 시속기 충속동 송속용 용속룽 강속항 기속희

현음: 가 감 검 구 기 동 용 룽 향 희

## 5.

그러면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이나 배합상의 제약성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속음이 생겨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듯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자 학습 과정에서의 타성이나 과오, 또는 유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형성자의 성부에 끌린 유추음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한자의 조자법은 「상형·지사·회의·형성」 등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형성자가 80%

를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 선인들은 일찍부터 한자·한문을 습득한 과정에서 음보다는 뜻을 더 중히 여겨 개개 한자음을 확인하지 않고 형성자의 성부음에 유추하여 오독한 나머지 그것이 오랜 기간을 통해 전승되어 오다가 마침내 한국 특유의 한자음이 형성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래에 두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

(1) 「우俗구」: ④ 嘔 嫗 漚 嫗.

‘匾’자의 『광운』 반절은 豈俱切(k'iu)(평성), 烏侯切(?au)(상성)의 두 음이 있는데 이를 성부로 취한 상기 한자들은 「影」 모에 속하므로 ‘우’가 정칙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溪」 모의 ‘구’가 통용된 듯하다. 아마도 ‘匾’음을 ‘구’로만 인식하여 이에 끌린 것으로 보인다.<sup>18)</sup>

(2) 「기俗히」: ④ 垓 岈 咳 骸 陔 菱 該 該 效 痍 咳

상기자들은 모두 「見」 모에 속하므로 ‘기’>‘개’가 정음인데 우리의 실제음은 ‘히’>‘해’로 전승된다. 이 역시 ‘亥’의 『광운』 반절이 胡改切(x'ai)(상성)이어서 이에 끌린 유추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자형(字形)의 상사로 인한 유추음이다. 『동운』서(序)에도 ‘字畫訛而魚魯混眞’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자에 있어서 자형의 상사는 어느 한 자음에 이끌리어 오독음을 낳기 쉽다. ①, ④의 정속음 중에도 성부음은 다를지언정 자형이 비슷하여 유추된 음으로 보이는 예가 허다하다. 역시 두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

(1) 「작俗격」: 繳, 「혁俗격」: 檄.

18) 『자화』에 ‘匾’를 취한 형성자는 모두 11자인데 그 음은 모두 ‘구’로만 표음되어 있다.

상기자의 성부는 ‘敷’인데 이 자의 『광운』 반절은 以炸切[iak], 古歷切[kiek]의 두 음이지만 우리 현대 음의는 ‘해 그림자 약, 노래할 교’로 전한다. 그러나 이를 성부로 취한 ‘獺’은 之若切[ɬiak]이고, ‘獾’은 胡狄切[yiek]이므로 앞의 ‘작(ㄷ)작), 혁’이 역시 정음이다. 그렇지만 실제음이 ‘격’으로 바뀐 것은 ‘激·獺’(古歷切 [kiek])자와 자형이 상사한 데서 연유한 음으로 생각된다.

(2) 「란俗만」: 巒, 「완俗만」: 彎 灣.

‘巒’의 『광운』 반절은 落官切[luan]이고, ‘彎, 灣’은 烏關切(?wan)이므로 이에 따르면 ‘란, 완’이 정칙음이다. 그러나 현대국어 한자음은 다 ‘만’이니 이는 아마도 ‘蠻’(莫還切 [mwan])과 자형이 상사하여 이에 끌린 음이 아닐까 싶다.

기타의 요인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 참 고 문 헌

- 강신항(1997). 「동국정운 음계의 성격」.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 태학사.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완진(1971). 「이른 시기에 있어서의 한중 언어 접촉의 일반에 대하여」. 『국어 음운 체계의 연구』. 일조각.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이돈주(1977).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속음자에 대하여」. 『이승녕 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탑출판사.  
 이돈주(1979). 「훈몽자회 한자음 연구」. 『전남대논문집』 25.  
 이돈주(1990). 『훈몽자회 한자음 연구』. 홍문각.

- 이돈주(1992). 『한자학총론(전정증보판)』. 박영사.
-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 이돈주(1997). 「전운옥편의 정·속 한자음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 이돈주(2000).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속음과 전운옥편 한자음의 비교 고찰」. 『한글』 249. 한글학회.
- 이돈주(2001). 「중국 중고한어와 일본한자음」(B. Karlgren, Grammata Serica의 역주). 『일본학보』 46. 한국일본학회.
- 이윤동(1997). 『한국한자음의 이해』. 형성출판사.